

## 프로그래밍 접하게된이유

---

초등학교 시절, 웹서핑 중 "이런 웹페이지는 어떻게 만들까?"라는 호기심에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코딩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여 스크래치로 게임을 만들며 알고리즘의 기초를 배웠고, 이는 제 프로그래밍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웹 개발에 관심이 생겨 HTML과 CSS를 독학하며 웹 퍼블리싱 기술을 익혔습니다. 비록 초기 디자인은 미숙했으나, 기본기를 다진 후에는 더 복잡한 시스템 구현에 도전하고자 Python의 Flask 프레임워크와 JavaScript를 공부하여 로그인 기능이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가 제 웹사이트의 SQL 인젝션 취약점을 시연해 보여주었는데, 이 경험이 웹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보안부분을 생각하며 개발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학과 학생들과의 간단한 프로젝트와 UI/UX 관련 학습을 통해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현재는 알고리즘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터프리터 개발과 패키지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단점

---

저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빠르게 학습해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려는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Rust가 메모리 안정성과 실행 속도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학습을 시작해 현재는 주요 개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Rust는 최신 언어인 만큼 라이브러리 문법이 자주 변경되어 AI 도구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신 공식 문서를 깊이 있게 읽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문서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제게 있어 단점이 라기보다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과 멘토링 경험

---

동아리에서 백엔드 개발 강의를 맡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 실질적인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Python의 FastAPI를 선택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게시판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백엔드 개발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 개념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직접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완성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을 다른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며, 기본적인 보안 지식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 실무 협업 경험

---

Hack Club이라는 비영리 조직에서 주최한 'Counterspell-Busan' 대회의 운영 및 개발에 참여하여 실제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구현까지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인의 온라인 Rust 프로그래밍 강의에서 도우미 역할을 맡아 수강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추가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다른 개발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법, 그리고 학습자의 필요에 맞게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의 목표

---

현재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프리터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패키지 관리 시스템과 pypi, crates.io와 같은 페이지 구축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설계와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개발자 커뮤니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개발자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